

자연 휴양림 속에 친교와 단합을 새롭게 다짐하는 평신도 시도직



5월3일(목) 본당 여성 구역장과 성모회 32명은 “친목과 단합”을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해미성지를 8년 만에 처음으로 야외 나들이를 하였다.

이번 야외 친목 단합회는 그간 성전건축 준비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여성분과원들의 친교 나눔이 저하되어 부임하신 주임신부님과 함께 새로운 봉사를 다짐하는 작은 행사이기도 하였다.

배 실비(여성분과장)는 ‘몇 년 간 성전 대공사준비와 마무리함에 하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연 휴양림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평신도 사도직을 인내와 순명, 겸손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로 귀가길 해미성지순례길 택했다.’하여 참석한 여성구역장과 성모회원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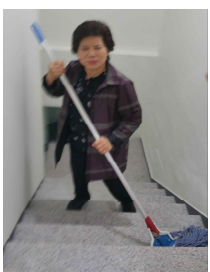
깨끗한 성전 친교와 화합 다진 나눔의 마당 잔 들어 권하는 모습 다정한 공동체

진주교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5월13일(주일) 교중 미사 후 전 신자가 구역별 분담하여 성전 대청소와 친교의 국수 잔치를 하였다.

본당 주임신부님께서는 “깨끗한 성전, 친교 나눔의 장”은 본당 신자가 성전 건립 후 처음으로 전 교우들에게 각 회합실 및 실내 구조물을 동시 개방되는 시간으로 정성 들여 건립한 성전과 교육관 곳곳을 살펴보고 깨끗하게 청소와 나눔의 잔치에 동참하여 친교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한마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하였다.



본당 청소는 1구역은 교육관 그리스도왕홀, 2구역은 만남의방 복도 집무실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3구역은 교육관지하 소강당, 5,6구역은 지하실 복도, 4구역은 성전지하 봉사지실, 성물 보관소, 8,10,12구역은 성당, 11구역은 교육관 3,4층 옥상 분담 청소 후 국수잔치와 간단한 막걸리가 나와 성전건축 후 처음 전 신자 함께하는 청소봉사와 나눔과 만남의 잔치 상 위에 양조장에서 특별히 맞춘 막걸리를 서로 권하면



서 화합의 공동체 사랑의 성전을 위해 서로 잔들이 오고 갔다. 특히 남성 1구역장은 멋진 솜씨로 성모상을 도색하고, 4구역 한 자매님은 성전지하 계단을 청소 하면서 우리성전에도 이런 공간이 있는가를 처음 알았다. 8, 10, 12구역은 성전바닥을 내 안방같이 걸레질도 하였다.

